40여년 만에 태사묘 서재 깨끗하게 정리 정돈해

안동권씨대종회 안동사무소는 안동권씨들이 이용하고 있는 서재(西齋)의 책장(冊欌)을 말끔히 청소한 후 간담회도 가졌다.

8월 18일 오전 9시 안동시 태사길(북문동) 태사묘 안에 자리잡고 있는 서재 안의 40여년 전부터 보관해 오고 있던 캐비닛 4개와 안동권씨세보(安東權氏世譜), 영남문원(嶺南文苑) 등 각종 책 3천여권을 태사묘 운영위원과 제례위원 8명이 서재 마루와 잔디밭에 드러내고 청소한 후 맞춤형 큰 책장 5개에 옮겨 놓는 등 5시간 만에 깨끗하게 정리 정돈했다. 이날 안동지방은 34도의 폭염에도 불구하고 책장 정리에 참석한 위원들은 권정창 대종회 제례위원장을 비롯하여 권오익 사무부총장, 권영건 태사묘 운영위원, 권용주 대종회 이사, 권영화 태사묘 감사, 권영채 대종회 제례위원, 권오식, 권기식 태사묘 두 운영위원 등 8명이 각종 책 3천여권을 깨끗하게 정리하는데 구슬땀을 흘렸다.

책장 정리가 끝나자 참석자들은 서재 마루에서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개최할 각종 회의의 가, 부를 토의하기도 했다.

태사묘 안에는 동재(東齋)와 서재(西齋)로 나누어져 있으며 동재는 안동김씨와 태사묘 해설사관리사무소로, 서재는 안동권씨와 안동장씨가 관리사무실로 각각 사용하고 있다. 안동권씨가 사용하고 있는 서재는 권영목씨가 40여년 간 관리해오다 2년 전에 돌아가시자 앞으로 권정창 제례위원장이 이 서재를 관리할 계획이다.

안동사무소는 중요한 여러 가지 책들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앞으로 서재에 훈재소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부장 권영건〉

경산 종친회 복다름 행사 가져

경산종친회(회장 권오흥)는 지난 7월 30일 시내 서울 삼계탕에서 족친 어른들과 택진 고문, 태자 순도 중래 부회장, 옥순감사, 성분 총무(여), 경수 청년부장, 화숙 부녀부장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복다름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종친회 권영승 총무의 사회로 시조 망배를 시작으로 회장을 대신하여 영달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감염병과 오랜 장마에도 무탈하게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고 기쁘다. 삼복더위에 모두 건강하고 가정에 편안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경산종친회는 1978년 10월 8일에 발족하여 4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회원 7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복다름 행사는 창립 이래 족친 어른들을 모시고 실시하는 년 중 행사이며 봄·가을에는 시조묘소 및 전국의 선조묘소를 참배하며 숭조 사상과 족의를 돈독히 하고 있다. 정기모임은 격월제로 홀수달 넷째 주 목요일이다.

중래(검교공파 32세) 부회장은 "매년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고맙다. 삼계탕을 먹으니 힘이 나서 이번 여름도 건강하게 잘 보낼 것 같다. 다른 분들도 모두 건강하게 삼복더위 잘 지내고 코로나 감염병도 조심하시라"고 했다.

〈권성옥 한청타임즈·평생교육 도민기자〉

인류사에는 정사와 야사와 가족사가 있습니다
가족사는 족보이고 한국은 족보의 첨단선진국입니다

추밀공파 양촌문충공계
창수공족보를 만듭니다

창수공은 양촌 문충공의 4남 안숙공의 손자로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감내에 산소가 계신
광흥창수 휘 억憶을 계파조로 하는 1만5천 자손입니다

이번 족보는 한글판한자병기 전산보로서
책자는 첨단출판체재로, 전산판은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열람되는 영상보로 병행제작됩니다

수단[수록단자]의 마감은 2020년 4월 30일이고
수단비[등록비]는 창수공종회에서 지원하여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족보발간사무실: (우)08756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95 천우빌딩 503호
지하철 2호선 봉천역 4번출구에서 150미터
팩스겸용전화 02-885-7776 e-mail kwon8857776@naver.com
간사 권병관 010-8869-2867 종보사 02)723-4480

안동권씨 창수공종회장 권병돈

권율 도원수 3대첩

贈 領議政·永嘉府院君·忠莊公·晩翠堂

증 영의정 영가부원군 충장공 만취당

성균관成均館 전의典儀 겸 전례사典禮師 **권정택**權貞澤

함안에 주둔한 이튿날 왜적이 김해로부터 대군으로 쳐들어온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장수들이 의논하는데 함안을 지켜야 한다느니 정암 나루를 지켜야 한다느니 갑론을박하다가 적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날이 6월 16일이었다. 왜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 등이 이끄는 30만 대군이 전날 김해 창원으로 전진하여 수륙으로 전진 이튿날 그 선봉이 함안에 이른 것이었다. 아군 진영에서는 적의 진공 소식을 듣고도 신속하게 대비하지 못한 탓으로 기습을 당하게 되었다. 적의 총소리가 들리자 일시에 군사들이 무너지는데, 성을 빠져나가다가 다리 줄에서 떨어져 죽거나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짓밟혀 죽을 자도 많았다. 성은 곧 함락되었다. 이때 공은 설욕의 기회를 뒤로 미루고 이빈(李斌) 등과 함께 퇴각하여 산음(山陰)으로 향하다가 전라도로 방향을 바꾸었다. 적은 의령에 들어가 분탕하였다. 공은 남원으로 들어가 급히 유생과 백성들을 모아 성을 지킬 준비를 서둘렀다. 그런데 남원 부사 조의가 능히 조처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엄중한 군율을 세울 필요가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불충한 하관들을 엄히 다스려야 했다.

"나라에서 나에게 높은 벼슬을 준 것은 바로 오늘 같은 일을 위함이었다. 그런데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어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는가."

공은 조의를 크게 꾸짖고 곤장을 때려 다스렸다. 또한, 관내의 있는 건 전 목천현감(前 木川縣監) 최적(崔積)이 명령을 듣지 않는다기에 공은 군관을 보내어 잡아드렸다. 최적은 공에게 삼종의 척당이기도 하였다.

"네가 나를 아느냐? 먼저 너를 베어 버리지 않으면 큰일을 이룰 수 없다."

하고, 공은 그를 묶어서 얼굴에 재를 바르고 성중에게 외치며 보였다. 그러자 뒤에 처졌던 자들이 성에 올라가 각기 맡은바 여장(女墻; 성가퀴)· 궁가(弓家; 활 쏘는 구멍)에 들어가서 임전 태세를 갖추었다. 한편 나라에서는 도원수 김명원(金命元)을 해임하고 전공 높은 공을 도원수 제도도순찰사(諸道都巡察使)로 임명하였다.

교지를 받은 사신이 한성으로부터 영남으로 바로 내려왔다가 다시 공을 찾아오니, 공은 밤중에 5리 밖에 나아가 공경히 명을 받았다. 그동안 왜적은 화의를 진행하면 영남의 요지인 진주성(晉州城)에 공격을 가하여 6월 29일 성을 함락시켰다. 왜적은 전해 진주성에서 패퇴했으므로 보복적인 공격을 했던 것인데, 창의사(倡義使) 김천일 등이 고립된 상태에서 가토 기요마사· 고니시 유키나가· 흑자 전환 장정 등이 이끄는 적 대군을 맞아 치열한 격전을 치렀으나, 중과부적으로 폐사하고 애국정신으로 뭉쳐 싸우던 군· 관· 국민이 무참히 학살당하였다. 이 무렵 공은 명을 받고 영남으로 향하다가 함양에서 퇴각한 이빈 · 선거이(宣居怡) 등을 만나 운봉에 머무르면서 대기 하였다. 그 후 휴전회의가 계속되어 전쟁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는데, 명나라와 일본이 서로 승리를 자처하여 견해차가 크게 엇갈리는 바람에 선조 29년(1596) 병신 9월 끝내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다. 그러자 왜적은 이듬해 1월에 다시 바다를 건너와 경남 일대에 성을 점령하였다. 이것이 정유재란(丁酉再亂)이다. 이때 삼도 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 이순신(李舜臣) 원균(元均)의 모함으로 투옥되었는데 원로대신 정탁의 변호로 공의 막하에서 백의종군(白衣從軍)하니, 이미 그의 혁혁한 전공을 아는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슬퍼하였다. 공은 이순신의 뒤를 이어 삼도 수군통제사가 된 원균에게 날마다 진군하기를 독촉하였다. 원균은 핑계 만대고 머뭇거리다가 겨우 군사를 출동시켰는데, 서생포(西 生浦) 앞바다와 가덕도(加德 道)에서 대패하고 간신히 거제도(巨濟道) 칠천량(漆川梁)으로 피하였다. 파보를 접한 공은 고성(固城)에서 격서(檄書)를 보내어 원균을 불러서 곤장을 치고 다시 진격하라고 독촉하였다. 그러나 원균은 성을 내며 아무런 대응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왜적의 기습을 받아 크게 무너지고 자신도 죽었다. 수군의 패배 조야가 놀랐다. 왕은 이순신을 다시 기용하여 삼도 수군통제사로 삼았다고 공은 이순신에게 진주에 가서 남은 군사를 수습하도록 명하였다.

이순신 그러하듯 공 역시 도원수에 임명되어 영남의 모든 군사를 거느렸으나, 한때는 병권을 남에게 돌려야 했고 그러다가 다시 기용되기도 하였다. 정유재란을 당하여 명나라에서는 양호· 마귀 등을 보내어 원병 캐 하였으므로 조·명 연합군을 정유년 9월 충청도 직산까지 북상했던 왜적을 저지할 수 있었고. 이에 왜적은 남쪽으로 밀려 내려와 장기전에 대비한 진지를 구축하였다. 그해 겨울 공은 명나라 마귀(麻貴) 제독을 따라 울산에 가서 대진하였다. 그때 명나라 사령관 양 호가 공에게 홀로 본토 군사를 거느리고 화공을 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공이 여러 장수를 독촉하여 돌진하게 하고, 뒤떨어지는 자 두 명을 베어서 돌려보내니, 여러 군사가 뛰고 고함치면서 나아가지 않는 자가 없었다. 여러 장수가 개미처럼 부 터 올라가서 함께 책 안에 들어가 성 밑에 바짝 다가서니 마귀가 칭찬하기를,

"원수가 호령을 능히 시행한다." 하였으며 양호도 "조선군사가 함께 싸워서 군세를 도우니 매우 기쁘다."

하며 흡족해하였다. 그러나 공은 양호의 돌연한 퇴각령으로 철수해야 했다. 이듬해 선조 31년 1598년 무술에 공은 다시 명나라 유정(劉綎) 제독의 순천역(順天役)에 따라갔으나 확전을 꺼려하는 명장(名將)들의 비협조로 공을 세울 수가 없었다. 선견지명이 있는 말을 해도 그들은 체통 때문에 채용하지 않았고, 선등지용(先登之勇)을 발휘하여서 해도 그들은 기회를 주지 않았다. 동년 8월 연합군이 왜적의 주력부대가 있는 울산을 공격하고 있을 때 일본의 풍신수길(豊臣秀吉)이 갑자기 죽었다. 그의 유명에 따라 일본이 철수하게 되니 7년 동안의 걸친 왜란이 비로써 종식되었다.

선조 32년(1599) 년 기해 4월과 윤사월에 걸쳐 공은 영호남을 돌아보고 귀경하였는데 전쟁이 남긴 엄청난 피해를 다시 절감하면서 심고(心苦) 또한 상당하여 노환(老患)을 재촉하게 되었다. 그래서 얼마 후 관직을 떠나 강화의 촌가로 돌아왔으나 병이 위독해서 다시 배를 타고 한성으로 들어가야 했고 7월 6일 우거하던 집에서 졸하니 63세였다. 묘소는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석현리 홍복산에 있다. 공의 초배는 정경부인 창녕조씨(昌寧曺氏) 청정 휘 원의 여식으로 7월 26일 기일이며 재배는 정경부인 죽산박씨(竹山朴氏) 현령 세현의 딸인데 두부인 다 아들을 두지 못하였다. 그래서 공의 중형(仲兄)인 증 좌찬성(左贊成) 순(恂)이 그 셋째 아들 익경(益慶)을 출계시켜 대를 잇게 하였다. 그 계자 익경 또한 호란(胡亂) 때 순결(純潔)하여 영순군(永順君)에 충의의 시호를 받았다. 묘소는 3위 합폄되어 있는데 사위인 백사 이항복이 행장을 짓고 삼촌 신흥이 신도 비문을 친하였으며 우암 송시열이 그 음기를 지었다. 사위 이항복을 경주 이씨로 영의정 오성부원군 문충공(鰲城府院君 文忠公)이며 아들의 성남과 정남을 두었는데 둘 다 부사가 되었다.

공은 졸한 후에 영의정에 추증되었는데 허 균이 제문을 지어, "원공(원공; 영의정)의 증직은 그 부친의 정승을 이었음이요, 길창부원군(吉昌府院君)으로 한 것은 문충(文忠; 권근)의 봉수군을 이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제문을 보고 공의 사위 이항복(李恒福)이 잘 지었다고 칭찬하였다. 공의 시호(諡號)는 장열(莊烈)이었으나 후에 충장(忠莊)으로 바꾸었고. 선조 37년 1604년 갑진 선무공신(宣武功臣)1등에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으로 추봉되었다. 공의 전공을 기르기 위하여 선조 35년 1602년 임인 6월에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使) 최립의 찬과 가평군수 한호의 서와 절충장군 행대호군·지재교 김상용의 전으로 행주대첩비(幸州大捷碑)를 세웠는데. 막하 유사 전 판관(幕下 有司 前 判官) 조대항(曺大恒)·전 훈련원장(前 訓練院長) 권승경(權升慶)·지세포 만호 이완근·소강진첨사 이광선·영동현감 이충립·전 만호 두기문·전 도사 최영길·전 현감 박진영 등이 협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헌종 7년 1841년 신축에 특명으로 행주에 기공사(紀功祠)를 설립하고, 사내에 대첩비를 운석 조인영의 찬으로 다시 세웠다. 고종 40년 1903년 계묘의 공의 후손인 광주목사(光州牧使) 권재윤(權材允)이 연재 송병선의 찬과 권중현(權重顯)의 소지로 이치대첩비(梨峙大捷碑)를 충남 금산군 금성초등학교(錦城初等學校) 옆 교회 터에 세웠다. 그러나 비는 왜정 말기 왜경에 의해 폭파되어 파편을 모아 그 부근에 매안(埋安)한 것을 1963년 10월 11일 전주시 전동에 거주하는 김일순옹이 해방 이후 줄곧 노력한 끝에 전북 인사 두병욱·유영구·변동렬과 금산 유림의 협조를 얻어서 전북과 충남의 경계인 이치령 아래 묵산리(墨山里)에 다시 건립하였다. 동년 10월 18일 정부에서 조선 선조 35년에 세웠던 행주대첩비를 보수하는 동시에 재건하였으며, 1970년 봄에 온양 현충사(溫陽 顯忠祠)에 이어 두 번째 성역화 사업으로 충장공의 옛 전장인 행주산성에 건립하였다.

(끝)

〈조선왕조실록, 백사집, 국조인물과 은봉야사, 금산군지, 대동야승, 열려실기술, 동야휴집, 대동기문, 상촌집〉